나눔의 소공동체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Holy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2012년 8월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70장)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6,24-35)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요한 6,24-35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게 정말 잘 될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확실한 무엇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금까지의 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익숙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거나 아니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정표 하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멈춰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맡기고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나무들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가지를 뻗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립니다. 너무나 막막한 하늘길이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땅의 길이지만 그래도 나아갑니다. 마치 스스로 길을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스스로 몸을 뻗어서 뿌리를 내립니다. 가지를 뻗어서 그 끝마다 잎사귀를 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이루어 내고 맙니다. 단지 하나의 씨앗으로 멈추지 않고 자라나서 언젠가는 참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산에 가보면 나무 하나 하나가 참으로 멋지고 그 어우러짐이 더욱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 나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하고 대답하십니다. 조금은 두려워도 주님을 믿고 시작해 보는 것, 맡겨 보는 것, 하느님의 일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면 하느님의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해 주시고 빵으로 다가오셔서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 바로 주님을 믿고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나무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멋지게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수원교구 8월 나눔의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지금은 새 성전 건축과 이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하나로 모아진 지향이 담긴 힘찬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산호세 성당 공동체가 새롭게 둥지를 틀 새 성전으로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도움을 정성어린 기도로 청합시다.

※ 9월 30일에 부활반 예비자 입교식이 있습니다. 많은 예비 신자들이 입교할 수 있도록 구역원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선교를 실천합시다.

※ 본당에 새로 전입한 교우들이 소공동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소공동체 모임을 적극 홍보합시다.

※ 9월 5일에 <시편과 기도생활>로 개강하는 수요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 합시다.
시간 : 오전반 오전 10시-12시 / 오후반 오후 7시30분-9시30분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레위기 23장

다음은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이다. 주요 절기에 대한 설명(※)을 읽고 해당하는 신, 구약 성경 구절을 읽으시오.

1. 파스카(유월절, 해방절, 과월절) 와 무교절 : 이 날은 이집트 탈출 사건의 긴박함을 기억하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는데 이 음식들을 허리에 때를 매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다. 파스카는 모든 성인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내야하는 의무 순례 축제이며, 파스카 다음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낸다.

구약에서의 해당 본문	신약에서의 해당 본문
레위 23,5-8	마르 14,1-16, 마태 26,2-9, 루카 2,41; 22,1-5 요한 2,13; 6,4; 11,55; 12,1; 13,1; 18,28; 18,39; 19,14

2. 주간절(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 오순절은 고대 가나안의 봄 추수 축제였던 맥추절과 연결되어 있었다. 파스카를 지낸 후 7일을 일곱 번 지낸 다음에 지내게 된다. ‘칠칠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으며, ‘7x7=49’에서 하루를 더해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나왔다. 이후에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날을 ‘성령 강림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구약에서의 해당 본문	신약에서의 해당 본문
레위 23,15-22, 민수 28,26-31	사도 2,1-4

3. 속죄일(욤 키푸르) : 속죄의 날을 뜻하는 이 날은 일 년에 한 번 대사제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용서받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로 이때 대사제는 우선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받고, 이어 온 백성의 용서를 청하게 된다.

구약에서의 해당 본문	신약에서의 해당 본문
레위 23,26-32; 16,29-30	히브 9,7; 9,11-14; 9,25

4, 초막절(추수절, 수꼿, 장막절) : 초막절은 파스카처럼 모두 7일간 지내게 되어 있는 가을 추수 축제이다. 봄철의 곡식 추수와 함께 이 축제에는 과일들(올리브, 포도, 무화과, 대추야자)의 수확에 감사한다. 이 기간 유다인들은 이집트 탈출 여정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초막(수카)’을 지어 거기에서 기거하는데 이 초막은 본래 집의 한 벽면에 붙여짓기도 하고, 별도로 야외에 짓기도 하는데 실내와 나무 밑에는 지을 수 없다. 지붕은 짚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엉성하게 덮어 별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구약에서의 해당 본문	레위 23,34-36

※ 참고문헌－모세오경, 김혜윤, 생활성서, 2005

◈말씀과 생활 나누기

레위기에서 강조되는 각종 전례 규정들은 대사제이시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봉헌하심으로써 단 한 번의 제사로 완결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분의 사제직을 따르는 우리도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로 자신을 봉헌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묵상해 보고 서로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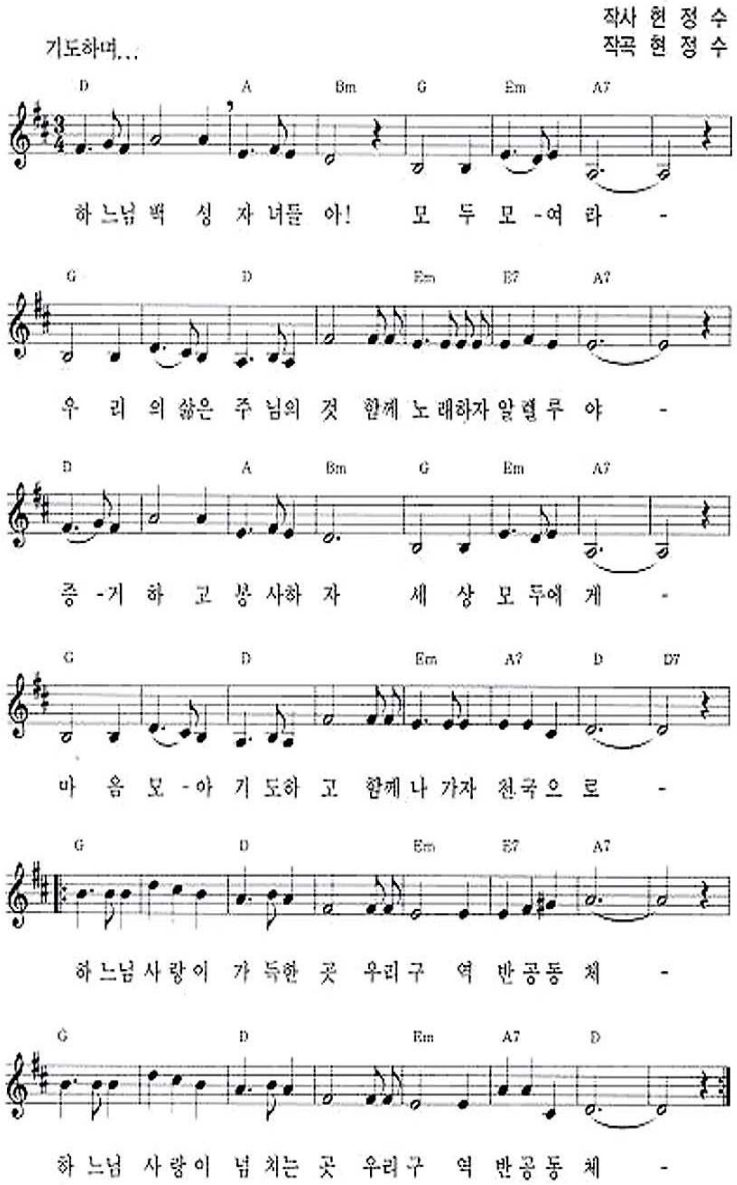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